



2021. 8. 4 (수)

**meritz** Strategy Daily

# 전략공감 2.0

## Strategy Idea

2Q21 코스피 실적 중간점검: 실적은 서프라이즈, 주가는 침묵

## 오늘의 차트

중국 사교육 규제, 상장 지역에 따라 차별적 영향

## 칼럼의 재해석

델타 바이러스의 돌파감염, 전쟁의 양상은 바뀔 것인가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 Strategy Idea



▲ Passive/ETF  
Analyst 이정연  
02. 6454-4895  
jungyeon.lee@meritz.co.kr

## 2Q21 코스피 실적 중간점검: 실적은 서프라이즈, 주가는 침묵

- ✓ 코스피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기록 종(영업이익, 순이익) 각각 10.1%, 11.2% 상회
- ✓ 소재(화학, 철강), 금융, IT업종 주도로 실적 서프라이즈. 반면, 1분기와 달리 산업재, 에너지 등 경기민감 업종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
- ✓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1) 실적에 대한 기대감 선반영, 2) 내년 이익 전망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주가 상승탄력은 약한 모습

2분기 실적시즌 63%진행  
(8/3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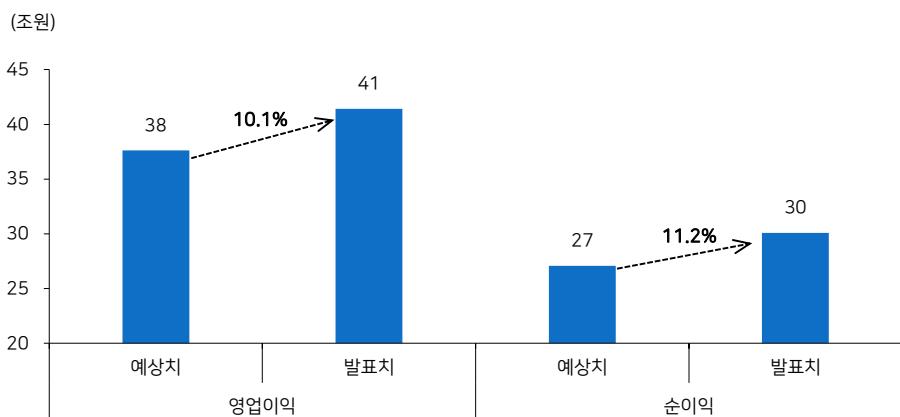
### 2분기 실적: 영업이익, 순이익 각각 10.1%, 11.2% 상회

2분기 실적시즌이 절반 정도 지난 시점이다. 시가총액 기준 63.4%(종목수 기준 14.1%) 종목이 발표했으며, 반도체(98.7%), 은행(96.0%), 자동차(76.6%) 등 이익비중 큰 업종은 대부분 실적 발표를 끝마쳤다. 따라서 현재까지 실적 발표한 종목들을 기준으로 2분기 실적 분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8/3 기준).

영업이익, 순이익 각각  
10.3%, 10.9% 상회로 긍정적

실적 발표한 종목 합산 기준 영업이익, 순이익은 각각 예상치 대비 10.1%, 11.2% 상회한 수준으로 긍정적이다. 지난 1분기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던 실적이 발표된 이후, 한편으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실적 피크아웃 우려와 가파른 이익상향 조정에 따른 예상치 하회를 전망하는 시각도 있었다. 다만, 현재까지 발표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러한 편더멘탈에 대한 우려는 완화될 수준의 결과가 나왔다.

그림1 2분기 실적, 예상치 대비 10% 이상 상회



주: 컨센서스 존재 종목 중 실적발표 종목 합산 기준(8/3 기준)  
자료: Fngudi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이익 상회율,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수 비율 과거 대비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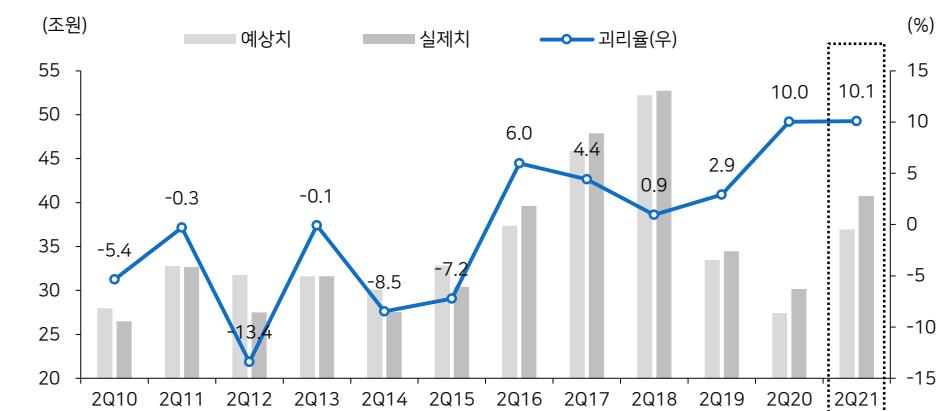
올해 2분기 실적, 과거 같은 기간 대비 우수한 수준

2분기 실적의 예상치 대비 10.1% 상회라는 수치는 과거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할 만하다. 지난 10년간 2분기 실적은 예상치 대비 하회하거나 1~6%정도 웃도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5년만 놓고 보아도 평균 5% 상회한 수준으로 발표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2분기 실적은 예상치 대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 중이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종목비중 5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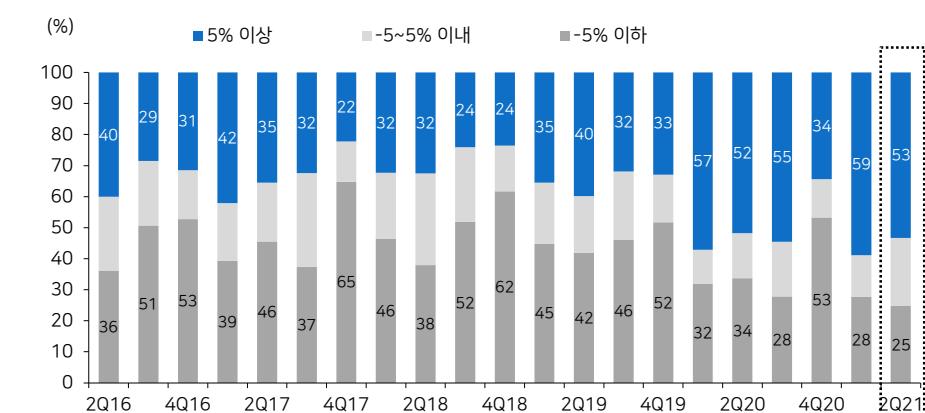
어닝 서프라이즈(영업이익 기준 5% 상회) 종목수의 비중(분포)으로 보아도 코로나 이후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됐던 수준과 비슷한 비율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지난해 코로나 확산 이후 생각보다 가파른 경기 회복세에 절반이상의 종목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 실적 역시 현재까지 발표한 종목들 기준으로 55% 종목이 5% 이상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다. 물론 해당 수치는 실적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그림2 과거 2분기 영업이익 예상치 vs 실제치\_2010년 이후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과거 분기별 영업이익 서프라이즈(쇼크) 종목수 분포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소재(화학), 금융, IT 업종의 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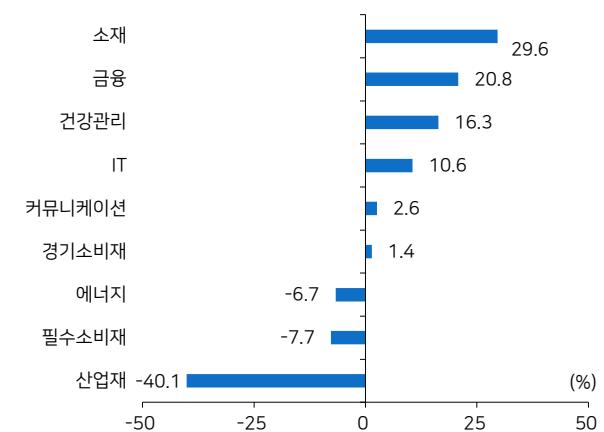
어닝 서프라이즈 주도 업종:  
소재(화학), 금융, IT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재, 금융, IT 업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주도하고 있다. 소재 업종의 경우, 화학(2차전지) 부분에서 LG화학의 일회성 이익(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 합의금액 1조원)이 반영되기도 했으나, 철강 부분의 실적도 매우 긍정적이다. 따라서 최근 중시 전반에 대한 외국인 수급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 두 업종에 대해서는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익비중 큰 일부 업종의 차별적인  
어닝 서프라이즈

다만, 이번 2분기 실적 내용 중 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지난 1분기와 달리 업종 전반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산업재(-40.1%), 에너지(-6.7%) 등 경기민감 업종의 경우 현재까지 발표된 실적은 부진한 편이다. 세부 업종별 자세한 사항은 표1에 정리해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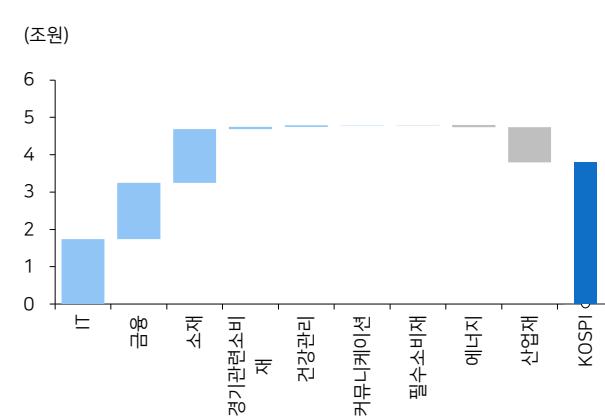
그림4 업종별 영업이익 컨센서스 대비 상회율



주: 컨센서스 존재 종목 중 실적발표 종목 합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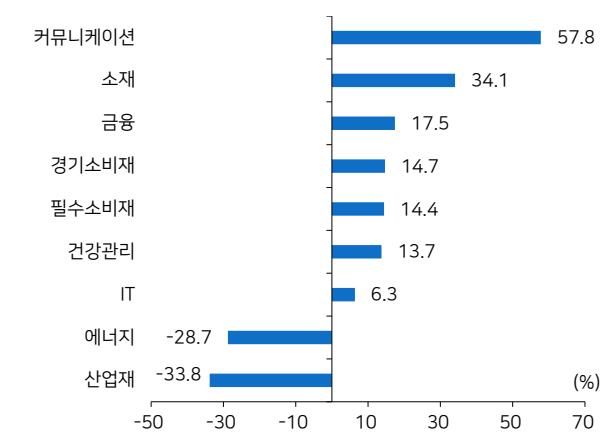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업종별 영업이익 컨센서스 대비 상회폭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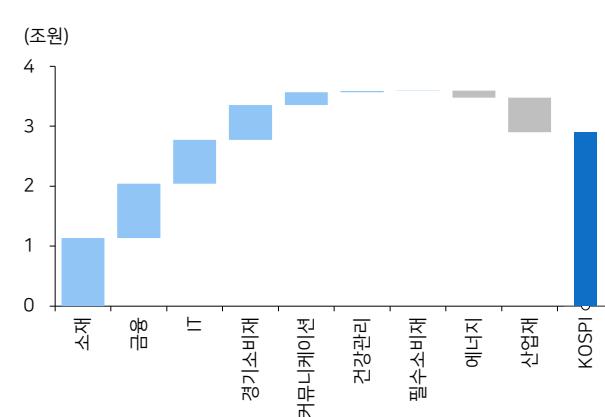
그림6 업종별 순이익 컨센서스 대비 상회율



주: 컨센서스 존재 종목 중 실적발표 종목 합산 기준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업종별 순이익 컨센서스 대비 상회폭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세부업종별 예상치 vs 발표치 비교

표1 세부 업종별 예상치 vs 실제치 비교

업종	진행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수익률 6/30 이후
		시총 기준 (%)	예상치(A) (조원)	발표치(B) (조원)	상(하)회율 (B-A)/A (%)	예상치(A) (조원)	발표치(B) (조원)	상(하)회율 (B-A)/A (%)	예상치(A) (조원)	발표치(B) (조원)	상(하)회율 (B-A)/A (%)
KOSPI	63.4	301.8	315.9	4.7	37.6	41.4	10.1	27.1	30.1	11.2	(2.5)
반도체	98.7	71.3	74.2	4.0	13.7	15.3	11.5	10.2	11.4	12.4	-2.8
소프트웨어	48.0	5.7	5.9	3.2	0.6	0.6	0.5	0.4	0.6	55.6	-2.4
건강관리	43.2	2.1	2.2	4.1	0.2	0.3	16.3	0.1	0.2	13.7	-0.8
자동차	76.6	60.8	62.6	3.1	4.0	4.1	1.3	3.4	3.9	14.9	-6.9
화학	68.4	18.6	19.6	5.8	2.1	3.1	51.5	1.7	2.3	37.4	1.5
IT가전	81.1	20.7	20.5	-1.1	1.4	1.4	0.4	0.7	0.1	-90.8	4.1
상사,자본재	46.0	23.3	25.7	10.2	0.9	1.1	23.5	0.6	0.7	22.0	-0.3
화장품,의류,완구	52.7	6.7	6.8	2.1	0.9	0.9	0.4	0.5	0.6	16.3	-8.9
은행	96.0	N/A	N/A	-	6.6	7.6	14.5	4.8	5.5	15.0	-5.9
건설,건축관련	60.6	17.4	17.0	-2.2	1.3	1.3	-1.2	0.9	1.1	29.1	-1.3
필수소비재	6.5	2.3	2.3	-2.0	0.2	0.1	-7.7	0.1	0.1	14.4	-0.3
운송	14.7	5.6	6.1	8.3	0.3	0.3	13.0	0.2	0.2	26.3	-8.3
철강	81.1	23.7	24.8	4.6	2.5	2.8	12.9	1.6	2.1	31.9	1.8
에너지	34.9	12.7	13.2	3.8	0.8	0.8	-6.7	0.4	0.3	-28.7	-9.5
보험	6.2	2.7	5.9	119.5	-0.2	0.2	255.1	0.1	0.2	156.3	-1.0
기계	30.2	4.9	4.9	0.3	0.3	0.3	0.1	0.2	0.2	23.7	-2.2
통신서비스	-	0.0	0.0	-	0.0	0.0	-	0.0	0.0	-	-2.5
IT하드웨어	66.3	4.5	4.9	9.5	0.4	0.5	13.4	0.3	0.4	31.6	5.8
증권	38.8	0.0	0.0	-	0.8	1.0	20.1	0.6	0.8	22.2	-4.3
유릴리티	-	0.0	0.0	-	0.0	0.0	-	0.0	0.0	-	1.1
비철,목재등	49.2	3.4	3.7	9.6	0.3	0.4	21.3	0.2	0.3	23.5	9.7
미디어,교육	14.0	0.9	1.0	2.4	0.1	0.1	4.9	0.1	0.1	7.9	-1.7
소매(유통)	-	0.0	0.0	-	0.0	0.0	-	0.0	0.0	-	-3.7
조선	76.2	6.2	6.2	0.2	-0.3	-1.5	-353.2	-0.2	-1.2	-529.6	-4.5
호텔,레저서비스	37.2	1.1	1.3	13.3	0.0	0.0	76.1	0.0	0.0	-250.0	-3.9
디스플레이	63.4	301.8	315.9	89.7	7.0	7.0	-0.9	0.6	0.7	18.5	0.4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이익은 잘나오지만 주가의 반응은...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코스피 지수  
상승탄력 약한 모습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2분기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실적 분위기와는 달리 최근 주가의 상승탄력은 약해진 모습이다. 주가 부진의 원인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 중국 규제 등의 이유 영향도 있으나, 실적이 잘나오는 기업들도 실적발표 이후 주가 상승은 제한적인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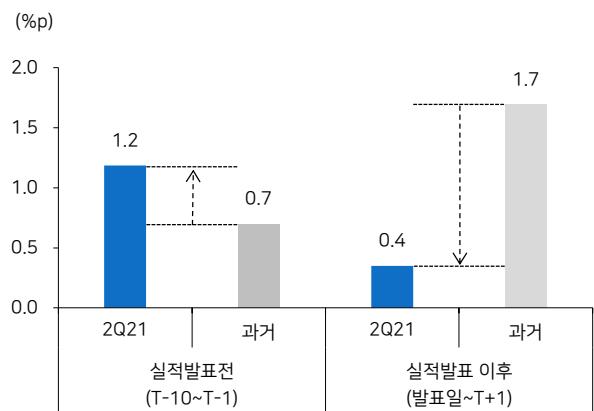
실제로 실적발표 이후(발표일 ~ D+1)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의 주가는 과거 평균 1.7%(코스피 대비 초과수익률 기준)상승했으나, 이번 2분기에 해당 종목들의 주가는 0.4% 상승으로 제한적었다. 이에 대해 펀더멘탈 측면에서 놓고 보면 크게 2가지로 해석 가능하다.

### 1) 실적발표 이전 기대감에 따른 선반영

과거 대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선반영

우선 첫 번째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 대비 선반영된 영향이 크다. 이번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들은 실적발표가 나오기 전 2주간 약 1.2% 수익률(코스피 대비 초과수익률 기준)을 기록했다. 과거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들의 같은 기간 수익률은 0.7%로 과거와 비교하면 실적 발표 이전 높은 수준으로 선반영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실적발표 이후에는 주가 상승폭은 과거 대비 다소 약했다.

그림8 실적발표 전후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주가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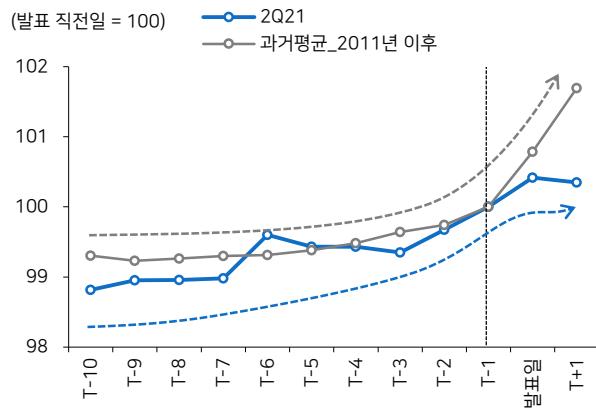


주1: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기준은 당시 '실적시즌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내용에 기반. 소폭의 흑자 전망으로 인한 왜곡을 제거하여 '(발표지 - 컨센서스)/(시가총액)'을 기준으로 0.3% 이상을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으로 분류

주2: 코스피 대비 초과수익률 기준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실적발표 전후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주가 흐름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2) 내년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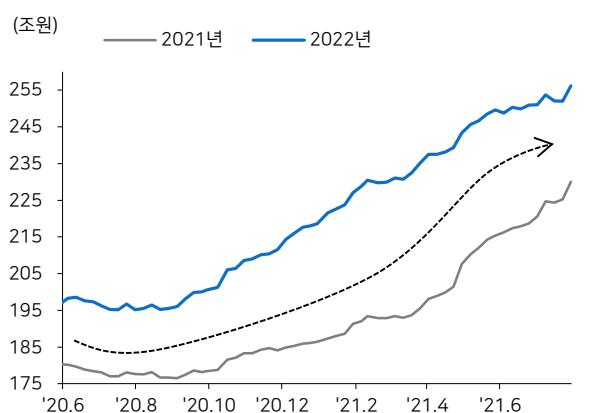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내년  
이익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

하반기들어 내년 이익에 대한  
기대감 반영될 전망

또 한가지 중시 불안 요인은 내년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연초 이후 올해와 내년 이익전망치의 상향조정이 지속되어 왔으나 상향 조정 기울기는 6월 들어 낮아지기 시작했다. 주목할 점은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올해의 이익전망치 변화율은 7월 한달간 5% 이상 상향조정 되었으나, 내년 이익전망치에 대한 변화율은 2%대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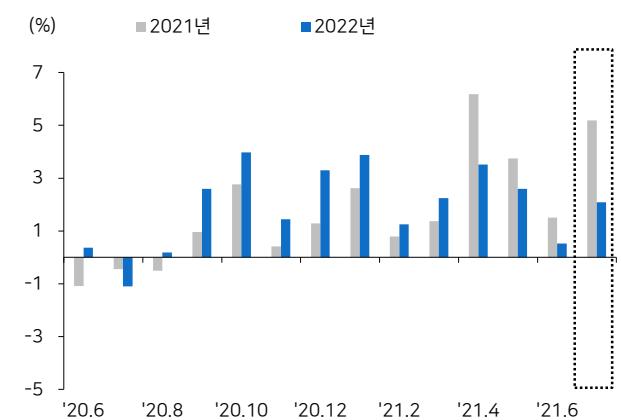
업종별로 살펴보아도 IT가전, 건설 업종을 제외하면 내년 이익전망치 변화율은 올해보다 제한적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하반기 후반에 접어들수록 올해보다 내년 이익 전망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더라도 내년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가 상승 흐름을 제한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그림10 영업이익 전망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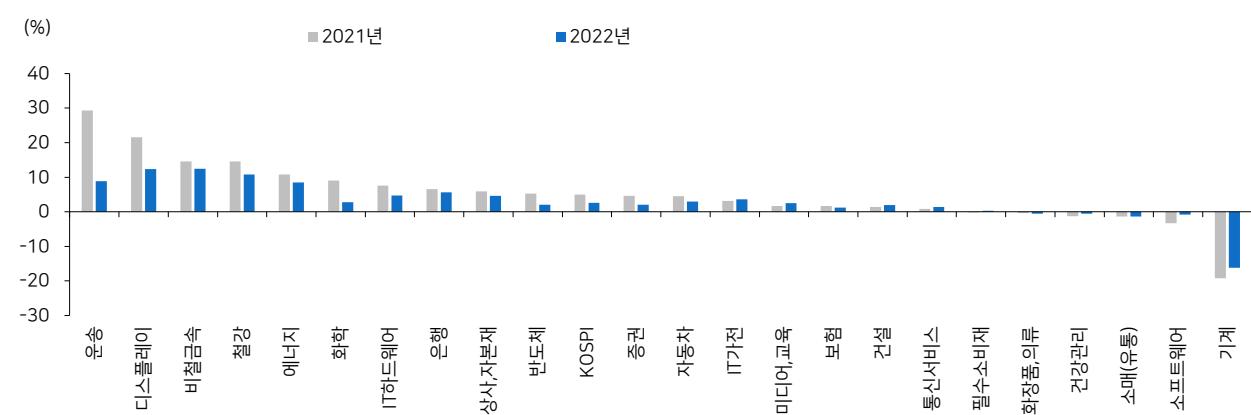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월별 이익전망치 변화율\_영업이익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업종별 영업이익 전망치 변화율\_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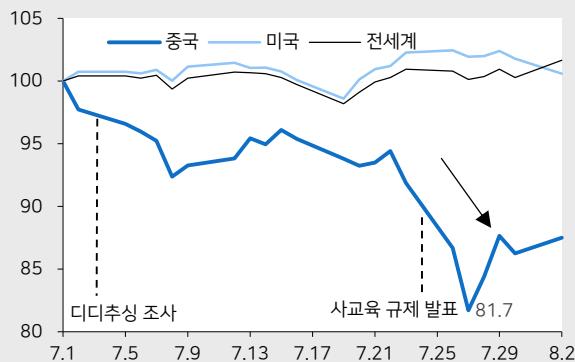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오늘의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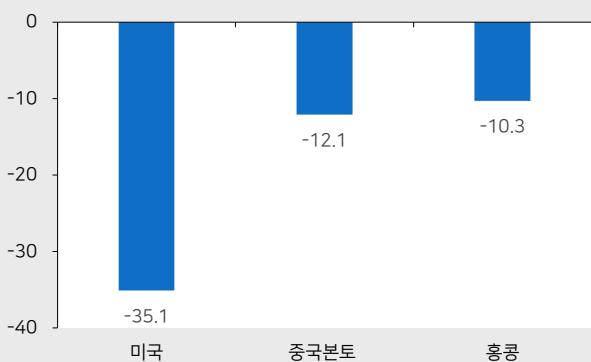
강봉주 연구위원

## 중국 사교육 규제, 상장 지역에 따라 차별적 영향

(2021.7.1=100) &lt;2021년 7월 중국, 세계 증시 비교&gt;



&lt;사교육 규제 발표 이후 상장 지역별 교육 종목수익률&gt;



주: 사교육 규제 발표일은 7월 24일, 수익률은 8월 2일까지

자료: Refinitiv,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내 사교육 규제 발표

중국 증시 하락

사교육 시장 크게 축소

연이은 규제에 중국 증시가 하락했다. 2021년 7월 24일, 중국은 인터넷 기업 규제와 부동산 규제에 이어 사교육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사교육 비용 부담으로 출산율이 하락한다는 비판에 이를 규제하기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향후 중국어, 수학, 영어 등 학과 과목을 가르치는 사교육 기관은 모두 비영리기구로 등록해야 한다. 학과 과목 사교육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규제한 것으로 상기 과목의 신규 사교육 기관 설립 협회도 금지된다.

뉴욕 상장 중국 교육 종목 하락

: 동일가중평균수익률 -35%

이에 가장 격렬한 반응을 보인 것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교육 종목이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교육 관련 18개 종목은 규제 발표 이후 8월 2일까지 동일가중평균수익률 -35.1%를 기록했다. 특히 시가총액이 크고 인지도가 높은 신동방교육(EDU)과 Tal Education(TAL) 등 종목은 -70% 수익률을 기록했다.

중국 본토 및 홍콩 상장 종목

: 동일가중평균수익률 -12%, -10%

중국 본토 및 홍콩에 상장된 교육 관련 주식들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종목들에 비해 하락폭이 작았다. 중국 본토에 상장된 교육 서비스 주식들은 발표 직후 12개 종목 중 8 종목이 하한가(10%)를 기록했고 이후 소폭 하락했다. 규제 발표일부터 8월 2일까지의 12종목 동일가중평균수익률은 -12.1%로 동기간 -10.3%를 기록한 40개 홍콩 교육 종목들의 수익률과 비슷했다.

사교육 규제에 교육 종목 모두  
하락했으나 상장 지역에 따라 가  
격 하락폭 차별화

정리해보면 중국 사교육 규제에 중국 교육 관련 종목들은 일제히 주가가 하락했으나 중국 상장 종목과 미국 상장 종목의 하락 폭이 다르게 나타났다. 같은 이슈에 대해 중국 본토에 상장된 기업보다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에 관한 이슈 확인과 함께 상기 규제의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

## 칼럼의 재해석

강봉주 연구위원

### 델타 바이러스의 돌파감염, 전쟁의 양상은 바뀔 것인가 (Forbes)

백신 접종율이 높아지면서 감소하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근 다시 증가 중이다. 돌파감염 성질을 강하게 가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백신 접종에 사활을 걸던 각국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본격적으로 연구된 기간이 짧아 신뢰성 있는 정보가 적었으나 최근 CDC에서 상기 바이러스에 대해 연구결과를 발표해 이것과 상기 발표에 따른 향후 전망을 소개한다.

CDC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 백신은 델타 변이에 대해 심한 증상은 완화시켜주나 감염 예방에 있어서 예상보다 낮은 효과를 보여주었다. 새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업데이트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이에 타인에게 병을 옮길 가능성 차이가 크지 않으며 백신만으로는 이 델타변이에 대해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태까지 코로나19 대응 전략으로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을 선택한 인류에게 있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그 과정에서 대두된 것이 백신과 치료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중증 완화 및 경증 치료에 효과를 보이는 경구용 치료제는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아 다수 기업들에서 연구 및 개발 중에 있으며 MSD와 화이자가 개발에 가장 앞서 있다. 비싼 가격이 변수지만 백신만으로 집단면역에 도달한다는 전략에 의구심이 생긴 현재, 경구용 치료제를 통한 전략 보완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 델타변이의 세계적 확산

증가 추세 코로나19 확진자 수

델타 변이 전세계적 확산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2010년 10월 인도에서 처음 보고되었고 2021년 6월 이후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중이다. 연구된 기간이 짧아 이 변이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가 적었다. 그러나 7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이하 CDC)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해 이것과 상기 발표에 따른 향후 전망을 소개하도록 한다.

그림1 전세계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추이



주: 7일 평균 확진자 수

자료: Our World in Dat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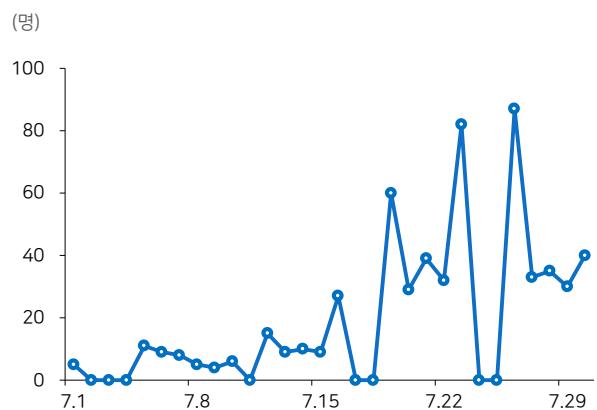
## 델타 변이의 돌파감염 사례: 메사추세츠 주

메사추세츠 주 감염 사례  
: 확진자의 74%가 접종완료자  
예상보다 감염 예방효과 낮음

CDC는 메사추세츠 주의 델타 변이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7월까지 거의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Barnstable County(메사추세츠 주 내 군)에서 여름 휴가 및 축제로 집단감염이 일어난 사례다. 이 주의 확진자 대부분은 델타 변이 확진자로 나타났고 상기 확진자의 74%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fully vaccinated)이었다. CDC는 또한 미국에서 매주 3만 5천명 가량의 돌파감염 유증상 감염자가 발생하는 중이라 발표하며 델타 변이의 백신 회피율이 높은 수준임을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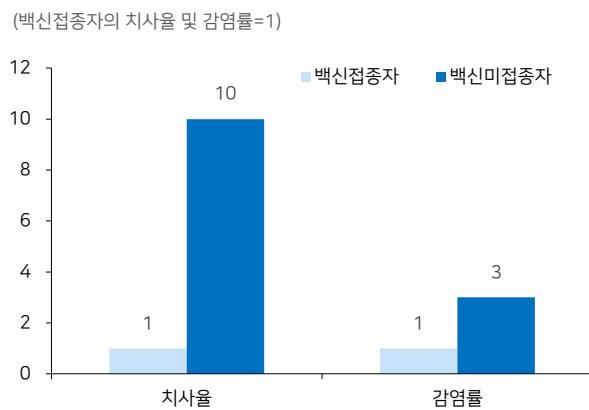
백신접종 완료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1회만 접종한 사람에 비해 중증 발현 확률은 1/10로 크게 감소하나 감염예방은 1/3 수준으로 중증 발현율 및 치명율을 감소시켜주는 것에 비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그림2 Barnstable County 일간 신규 확진자 추이



자료: <http://covid19.uga.edu>,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델타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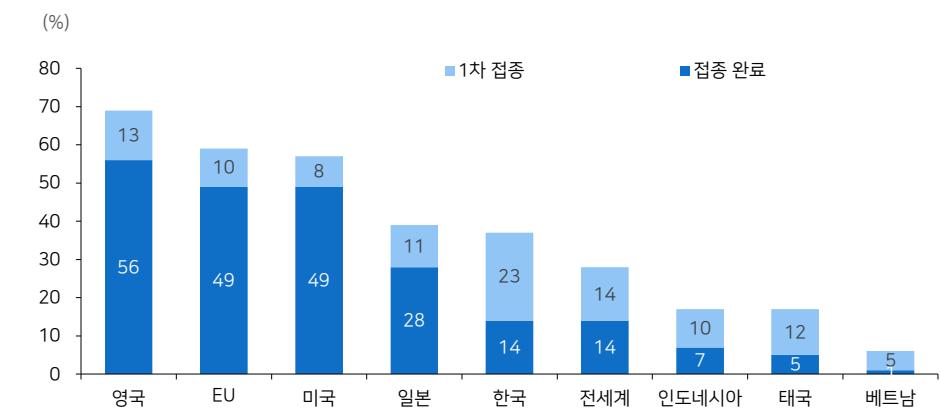
자료: CD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에 의  
구심: 전략 수정 필요

## 전략 수정 불가피

이와 같이 돌파감염 성질을 가진 델타 변이가 계속 확산된다면 향후 코로나 19 관련 전망과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현재까지 인류의 대 코로나 전략은 백신을 중심으로 한 집단면역체계 형성이다. 하지만 돌파 감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진다면 기존의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에 도달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CDC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쟁의 양상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림4 각국 백신 접종 현황



주: 2021년 7월 29일 기준

자료: Our Data In Worl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치료제 병행 전략 대두  
: 과거 타미플루의 등장으로 신종  
플루는 실질적으로 종식

## 전략 수정 방향: 백신 보완 치료제

백신의 효용성이 당초보다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치료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9년 신종 플루를 감기 수준으로 격하시킨 것은 백신의 영향도 있으나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치료제 타미플루의 역할이 컸다.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가 미미하고 백신을 회피하는 변이가 계속 생겨난다면 백신 접종과 치료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다수 기업에서 개발 착수  
: 인당 60만원 호가하는 비싼 가  
격이 변수

## 치료제 개발 현황: 비싼 가격이 변수

현재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는 화이자와 MSD가 선두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국내에서는 셀트리온이 임상 3상을 허가를 받는 등 치료제 개발에 앞서 있다. MSD와 화이자는 현재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며 MSD는 가을 내, 화이자는 연내 3상을 종료할 예정이다. 상기 개발 중인 경구용 치료제의 주 효과는 입원일 감소, 경증 환자의 회복 시간 단축으로 중증질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백신과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기업들이 개발 및 임상 실험에 착수하고 있으나 한 가지 변수는 비싼 가격이다. 미국 정부는 인당 80만원 가량의 가격으로 MSD의 코로나 치료제를 선구매했으며 셀트리온의 텔카로나도 인당 45~60만원의 가격이 책정됐다. 1회에 2~3만원 수준의 백신과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

## 정리

2021년 상반기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하자 사람들은 2021년 하반기에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백신을 회피하는 텔타 변이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수치적으로 드러난 상황은 당초 예상보다 텔타 변이의 돌파감염 성질이 뚜렷하다는 것이었다.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 백신을 보완할 전략이 필요해졌다. 그 과정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백신과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치료제가 그 보완책으로써 대두됐고 현재 비싸게 책정된 가격에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상태다. 치료제가 바뀐 전쟁의 양상을 다시 뒤집을 게임 체인저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원문:**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Outbreak Of Delta Variant Covid-19 In Provincetown, Massachusetts*